



묵어 축제에 감춰진 역사



이강렬 세종문화회관 사업본부장 본지 논설위원

업무상 대형 행사와 관련된 이벤트 업자들의 기획안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념하여 한바탕 판(축제)을 벌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다.

뜻은 공감하고 취지는 좋았다. 2006년은 어엿한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미 'Korea Japan Festa 2005' 로 정하여 각종사업을 공동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최근까지 일본 의회의원들의 망언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는 근본적인 점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앞서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지난 현충일에 일본 참의원에서 인공 국가들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켜서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2006년은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만든 소위 '을사 보호 조약'을 체결한 10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닌가.

일본군들이 고종황제와 대신들을 억압하여 강제로 의무 대신의 직인을 빼앗아 날인한 불법조약이다. 이 때문에 민영환등 여러 충신들이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2006년 을유년(乙酉年) 축제의 이면에는 이런 숨은 곡절들이 있다.

주어진 역할이나 좋은 행사만 만들면 되겠지만 한번쯤은 역사인식의 계기를 삼고, 21세기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쯤 반복해 의문을 갖게 한다.

조계사 신도회관 마련



조계사주지 지홍스님이 신도회관을 마련, 신도회 활성화와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사는 5월말 매입이 끝난 옛 삼운중심 건물에 대승회와 반야회 등 각급 신도회를 입주시키고 조계종 중심 사찰로서의 신도회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 신도회관 3층과 4층에는 청년회 등 나머지 신도단체들이 입주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조계사는 이번 신도회관 마련을 계기로 신행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군숙매

네팔, 달라이라마 생일 축하행사 금지



네팔 정부는 최근 자국내 티베트인들이 달라이라마 68회 생일 축하 행사 개최를 금지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현지 학교와 호텔에서 리셉션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려던 카트만두 내 티베트인들의 계획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것. 네팔에는 약 3만5천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것이 어머니의 품이다. 천하의 악독한 사람도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숙연해지기 마련이다. 남성 우월주의에 물들어 여성을 폄하하는 사람도 어머니가 있기에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자녀들의 목숨을 자기 임의로 갖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자식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함께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며칠 전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생활고에 지친 한 여인이 아이 셋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것이다. 그것도 죽기 싫다고 발버둥치는 아이들을 내던져버리고 함께 죽은 비정한 모정이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동댕이친 이 사회의 무관심도 문제라니 자신만 죽으면 자식들이 홀대 받으며 고생할 것이라 생각한 여인의 어리석음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 아직도 마더콤플렉스가 남아 있던 말인가? 유교적 가부장 사회의 유습인 마더콤플렉스는 자식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여성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시대적 환경이 달라졌기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불자 세상보기

목정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어린생명 또한 부처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죽은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초등학교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느냐는 것이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 그렇지만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이 사회의 청소년 관리 대책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자라나는 새싹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방치한단 말인가?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탁하다 보

니 서민들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진단해 본다. 자기 한 몸 보전하기도 어렵다 보니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식의 생명을 부모의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다. 자식은 이미 하나의 인격체이며, 그렇기에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불성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인격체이며 자라나고 있는 부처의 새싹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생명을 꺾었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씨

독자마당

현대불교를 읽고

불교문화 '상품'으로 개발 환영

불교문화유산을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교가 시대 흐름에 잘 적응해가는 모습이라고 본다. 그간 사찰문양이나 음식 등의 불교유형문화는 어느 정도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선보여 왔지만, 이번에는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 문화까지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보급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고 한다.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를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불자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 김희경(경원시 대방동)

관심 기획기사 계속 연재 부탁

난 재가불자다. 요사이 수행법을 놓고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위기론과 함께 남방불교권의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확산되고, 유사 수행법도 넘쳐나고 있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현대불교가 3주에 걸쳐 연재한 '간접집-수행법' 난립시대 조사선이 나아갈 길'을 읽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불자로서 수행은 생명과도 같다. 특히 수행 체계의 확립과 대중화는 불교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다. 수행법에 대한 기획기사를 계속 연재해 주길 바란다. 하성수(부산 중구 초량동)

'3보1배', '사랑의 음반' 호뭇한 한주

종교를 뛰어넘어 형제애를 보인 성직자들의 소식을 접했다. 암투병 중인 스님의 쾌유를 빌원하는 '사랑의 음반'을 목사님이 제작한다는 것이었다. 순간,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눈물이 생각났다. 세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해 3보1배 정진했던 두 성직자가 과연 남태평양 고개에서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한 주가 흐뭇했다. 홍영희(대전 중구 부사동)

나 역시 한국인의 어머니입니다

덴마크 입양아들의 대모 이머림 보살의 기사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입양인도 우리 형제이고, 때문에 '조국과 불교'를 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는 이 보살의 말이 존경심이 일어났다. 이 보살이 1만여 입양아를 위해 한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서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나 역시, 한국인으로 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박순자(서울 노원구 상계동)

외국노동자 지원 적극 나서야

불교계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설이 단 2곳이라는 기획기사는 불자인 나로서 큰 충격이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그토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며, 그들을 감싸 안는 모습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지난 주 MBC가 방영한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노동자 시설의 장(장)은 모두 신부님이거나 목사님이었다. 부러움 반, 부끄러움 반이었다. 이제 불교계가 적극 이 분야에 나서야 한다. 우리 스님들의 관심이 너무도 아쉽다. 김영수(서울 성북구 석관동)

나누는 삶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우리는행 불자회의 상락원 봉사 현장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사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분들의 활동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태호를 바라보는 현종관 불자님의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시간 없다는 핑계로 실행활동에 게으름을 피웠던 제 자신이 반성기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정경적으로 찾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는행 불자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미숙(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독자투고

'믿음'의 인플레이션 사리 신앙에 대해

소송은 오늘날 법회 참석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았습니 다. 무려 백만 사리를 모시는 불사라고 합니다. 본래 '사리'란 시신이 타고 남은 유골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출가 수행자의 '깨달음의 척도'로, 나아가 '예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다섯 군데의 사찰(적멸보궁)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곳 외에도 '진신사리'로 추정되는 사리가 발견되어 적멸보궁의 자리에 오른 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태조산 '도리사'입니다. 그 당시 도리사에서 행차 생활을 하고 있던 저서 부처님을 진전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짓는다는 '진신사리 진전'을 원 없이 했던 경향이 있어서인지 '사리'에 대한 특별한

'신도플기 위한 구색' 언제까지...

감정이 일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리' 한 과꽃 못 모시는 중은 무능한 중이 되어 버린 요즘의 불교계의 현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남방불교국가에 가면 거의 '인사처레' 수준에서 '사리'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면 사리를 모신 모든 절들이 '적멸보궁'을 꾸며주며 대대적인 천견·봉안법회로 신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절에 갔더니 대웅전 주불 자리를 이룸 모를 미안마 승려의 '사리'가 차지하고 있어 기절할 뻔 한 적도 있습니다. 유행처럼 모시는 '사리', 그것도 이름조차 모르는 남의 나라 승려의 '사리'임을 알면서도 신도를 '찾이기 위한 구색'으로 모시는 주지나, 이를 법당의 불상보다 먼저 예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신도들을 보면 한국불교의 '믿음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성법스님/ '세존(www.sejon.or.kr)' 사이트 운영자

서방에서 태어난 미륵(Maitreya): 한국에 오다

붓다는 극락(외계 불사의 행성)에 살아 있다! 라엘은 붓다를 만났다!

◆ 북방불교에 따르면 1973년이 불기 3천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 야쇼카왕이 남긴 비문을 근거로 할 경우 1973년은 불기 3천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불교경전에는 붓다 이후 3천년이 되는 해에 미래 인류의 등불이 될 미륵이 서방의 계두국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다.



사랑과평화비 메신저

라엘 초청강연회

불교인들을 초대합니다

8월 7일(목) 오후6시 스텔라극장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 및 3-4호선 충무로역
시행사용료: 5,000원

"한 사람을 희생시켜 전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전인류가 멸망하는 편이 낫다."



불사의행성 의장 야훼가 불교인에게 주는 메시지

불교는 지구상에서 더욱 더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진리 및 새로운 시대의 인간들에게 필요한 과학과 정신 사이의 새로운 균형에 가장 근접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그 신비적인 과거를 벗어버리지만 한편 바로 라엘리즘이 된다. - 눈이 있는 자는 진리를 볼 것이며, 귀 있는 자는 무한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

"붓다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붓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 Rael -"

서방에서 태어난 인류최후의 미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서방의 미륵 방한초청위원회
(02) 536-3176

WWW.RAEL.ORG